



우리 기업대학의 영업비밀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지킨다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 활용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기업들이 쉽고 간편하게 영업비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영업비밀 관리시스템은 '12년에 구축되어 그동안 약 1,000개 회사에서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은 영업비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업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여 분류하는 과정이 요구되었으며, 해당 과정에서 분류의 어려움, 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시스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영업비밀 등급 분류부터 유출 방지까지 영업비밀 관리 전 과정에 걸쳐 사용자의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높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는 ▲영업비밀 문서 등급 자동 분류 ▲접근권한 관리 및 이상 행위 탐지 ▲보안 문서 반출 승인 및 식별무늬 적용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연동 등이 포함된다.

지식재산처는 연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기업·대학 등에 보급할 예정이며,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최근 기술 유출로 인한 기업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보호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특허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강윤석	(042-481-5182)
		담당자	사무관	채정목	(042-481-3573)
			주무관	황예나	(042-481-5925)

